

이세보, 「농부가(農夫歌)」

1. 특징

- 연시조
- 유교적 가치관(우순풍조 성화) 드러남
- 세금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현실비판)도 나타남(8수)
- 종장 마지막 음보 생략(여운)
- 초, 중장은 구체적 장면, 종장은 화자의 견해
- 정학유의 '농가월령가'와 유사 : 사대부가 농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충고하며 수고를 치하하기도 하고 유교적 충의를 드러내기도 한다)

2. 주제 : 농가의 해야 할 일, 분위기, 충고

2. 교재 수록 부분 해석

좌수(左手)의 잡은 춘광(春光) 우수(右手)로 옮겨 니어
 왼손에 잡은 봄빛(여기서는 모종의 비유) 오른 손으로 옮겨내어
 농부가 흥을 계워 수답(水畓)의 이종(移種)하니
 농부가 흥을 내며 (모판에 있던 것을) 논에다 심으니
 아마도 성세 낙민(聖世樂民)은 이뿐인가
 아마도 태평성대에 즐거운 백성들은 이들뿐인가 하노라

<제3수>

초운(初耘) 재운(再耘) 풀 밀 적의 저 농부 수고한다
 첫 김매기, 두 번 째 김매기 할 때에 농부들 수고한다
 스립 쓰고 호미 들고 상평(上坪) 하평(下坪) 분주하다
 사립(삿갓) 쓰고 호미 들고 위아래 들로 바쁘게 다니며 일하는구나
 아마도 실시(失時)하면 일 년 씩이 허사(虛事)인가
 아마도 때를 놓치면 일년 농사가 허사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4수>

근고(勤苦)하여 심은 오곡(五穀) 날 가물어 근심터니
 애써서 심은 오곡(쌀, 보리, 콩, 조, 기장)이 날이 가물어 근심했는데
 유연 작운(油然作雲) 오신 비의 피는 이삭 거룩하다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온 비에 이삭 나오는 것이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조(雨順風調) 성화(聖化)신가
 아마도 비가 때맞추어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는 것이 임금의 덕으로 교화한 덕택인가
 백로(白露) 상강(霜降) 다닷거든 낮 가려 손의 들고
 백로 상강 절기 다다랐으니 낮을 갈아 손에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百穀)이 다 익었다
 지게를 지고 가서 보니 온갖 곡식이 다 익었구나
 지금의 실시(失時)한 농부야 일어 무삼
 봄에 때를 놓쳤던 농부에게 지금 말해야 무엇 하겠는가

<제5수>

<제6수>

일 년을 수고하여 백곡이 풍등(豐登)하니
 일년동안 수고하여 온갖 곡식이 풍성하니
 우순풍조(雨順風調) 아니런들 함포고복(含哺鼓腹) 어이 그리
 비가 때맞추어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지 않았으면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국태평(國太平) 민안락(民安樂)은 금세(今世)인가
 아마도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즐겁고 편안한 때는 지금인가 하노라 <제7수>

그디 추수(秋收) 얼마 현고 니 농사 지은 거슨
 그대 추수 얼마나 했는가 내가 농사 지은 것은
 토세(土稅) 신역(身役) 밋친 후의 몇 섬이나 남을는지
 땅에 대한 세금과 노역 대신 내는 세금 바치고 나면 몇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하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
 아마도 세금 내고 나면 겨울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8수>

2. 교재 외 부분

정월의 농기 닳고 이월의 밭출 간다
 정월에 농기구 닳고 이월에 밭을 간다
 장정은 들의 놀고 노약은 집의 잇서
 장정들은 들에서 놀고 노약자들은 집에 있어
 지금의 게으른 조부 신축한다
 지금의 게으른 며느리들은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한다 <제1수>

춘일리 지양하니 창경이 우짖는다
 ‘시경’의 한구절 : 춘일재양 유명창경-봄날 햇볕 따뜻해져 꿩꼬리 울어댄다
 뒤 뒤편의 풀을 썩고 압논의 변경이라
 뒷산의 풀을 깎고 앞 논은 갈아 뒤집기 한다
 아희야 들점심 니여 올 제 술 잊지 마라
 아이야 들 점심 내어올 때 술 잊지마라 <제2수>

그디 농사 적을 적의 니 추순들 변변할가
 그대 수확이 적을 때에 내 추수인들 변변할까
 저 건너 박부주 집의 빛이나 다 갹흔는지
 저 건너 박부자 집에서 꾸어 온 빛이나 다 갹흔는지
 아마도 가난한 소름은 가을도 봄인가
 아마도 가난한 사람은 수확철인 가을에도 보릿고개처럼 가난한가 <제9수>

철없는 빅성드라 가난을 설다 마라
 철없는 백성들아 가난을 서럽게 생각하지 마라
 절용 절검 슈신히면 성세 청복 되리로다
 아껴쓰고 검소하며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으면 태평성대의 좋은 복 누릴 것이다
 아마도 지독을 못하면 가택이 불안
 아마도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모른다면 집안이 불안해질 것이다 <제10수>

복이 스름을 찌르고 스름은 복 못 찌러
 복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이 복을 따를 수는 없어
 허날리 니실 씨의 다 각각 분당이라
 하늘이 세상에 내실 때에 각각 분수가 나뉘어 져음이라
 아마도 안빈낙도하면 쫓치 잊서
 아마도 안빈낙도하면 (가난의)끝이 있을 것이리라

<제11수>

흥진비리도 잇고 고진감니도 잇다
 흥진비래(興振悲來: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오고) 고진감래(苦盡甘來: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오는 것)이다
 도모지 헤아리면 텃지간 영허지니라
 헤아리면서 살면 천지간 모든 것이 차고 기우는 순리대로 이루어지니라
 아마도 슈신 덩긔하여 이디턱왕
 몸, 행실, 마음을 바르게 하며 태평성대를 기다린다
 수신(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고) 정기(몸을 바르게 함)하여 이대(理待다스리고 기다림)
 태왕(태운(泰運): 걱정이 없고 편안한 운수 + 왕운(旺運):왕성한 운수)